

태안군 뉴새마을운동 전개방향과 추진과제

목 차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태안정신과 옥파 이종일 선생의 사상
3. 뉴새마을운동(2008~)
4. 태안군의 새마을운동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록: 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과 최근 동향

김정연(수석연구위원)

충남발전연구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오랜 역사가 흐르는 동안 정립된 태안정신과 3.1운동 민족대표의 한 분이신 옥파 이종일 선생이 제창한 “신촌정신”을 바탕으로, 태안군에서 제2의 새마을 운동이 새롭게 해석되어 재점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
- 태안군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새마을의 날(2013. 4. 22)」에 “뉴비전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자 함.
- 특히, 태안지역 청소년들이 새마을정신을 학습토록 하여 긍정적, 봉사적,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올바른 청년상을 정립하며, 차세대 지도자로서의 기본소양을 갖게 하고자 함.
- 따라서, 그간의 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과 주요 내용, 성과 등에 대해서 정리하고, 태안군의 특성 맞는 뉴새마을운동 방향의 설정과 추진과제 도출이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 태안군 새마을운동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념·비전, 실천과제, 지역사회 참여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함.

3) 연구의 내용

- 역사를 통해서 본 태안정신과 옥파 이종일 선생의 “신촌정신”
- 21세기 뉴새마을운동의 의의와 내용
- 태안군 뉴새마을운동의 전개방향과 추진과제

2. 태안정신과 옥파 이종일 선생의 사상

1) 태안정신¹⁾

- 「태안정신 정립에 관한 연구(1997)」에 의하면, 태안정신의 실체는 “개척정신(開拓精神), 자립정신(自立精神), 화합정신(和合精神)”으로 나타남.

(1) 개척정신

① 선진문물의 수입관문

- 태안군은 사회변동기에는 거의 어김없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에 속했음
 - 그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였으며, 특히 해양을 통하여 문화가 이동했던 과거에 외국 문물의 수입 관문이었음
- 고대의 태안반도는 중국과의 교통 관문이었으며, 태안마애삼존불상이나 홍주사 등의 유물로 미루어볼 때, 해로를 통하여 선진 중국의 문물이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임.
 - 태안마애삼존불상은 국내 석불 중에서 가장 시기가 앞선 것으로 나타나며, 그 당시 태안지방의 선진성(先進性)을 보여줌
 - 고려시대에는 중국을 오가는 관리들이 유숙하였던 중간 기착지였으며, 이 과정에서 문물이 전래되었음(고려도경)
 - 16세기 들어 당선(당선)이나 이양선이 자주 출몰하면서 태안반도는 강화도와 더불어 군사적 요충지로 부각되었으며, 천주교가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임.
 - 중종9년(1514)에 소근진성을 축조하고 효종6년(1655)에는 안흥에 진(鎭)을 설치하고 성을 축조함

1) 임선빈 외(1997, 「태안정신 정립에 관한 연구」, 태안군·충남발전연구원 pp.65-85)를 요약하거나 전재(全載)함.

② 굴포 · 의항 · 안면도 운하 굴착

- 태안의 안흥량(安興梁)은 파선의 위험이 높은 연해항로였으며, 삼남(三南)의 세곡이 통과하는 경유지로서 간헐적으로 조거(潮渠)를 굴착하려는 노력이 있었음
 - 고려 인종 12년(1134) 이후 태안읍 도내리 오석산에서 천수만으로 빠지는 적돌강을 운하로 만들고자 조선 현종 10년(1669)에 이르기까지 10여 차례 공사하였으나 지하의 암반 등의 장애요인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음
 - 그 대안으로 중종 17년(1522)에 의항운하 계획을 수립하여 중종 30년에 완공하였음. 이 운하는 외해의 거친 풍랑을 피하려는 목적이었음. 현재는 그 흔적만 남아있음.
 - 또 하나는 17세기 중반 태안 향리 방경잠(房景岑)의 주도로 안면곶을 가로지르는 운하를 굴착하여 완공하였음
- 이같이 태안군의 역사에는 험난한 뱃길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인명과 물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운하를 굴착했던 시도는 태안군의 상징물로 손색이 없을 것임

③ 교통과 상업의 요지

- 중국의 선진문물을 수입하고, 또 한편으로 조운로를 통하여 삼남의 다양한 산물이 이동하였던 태안군은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로 성장하였음.
 - 태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어염시수(漁鹽柴水)라는 말은 어업과 상업의 발전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 「택리지」의 표현대로 내포는 아산만이라는 큰 못(大澤)을 상이에 두고 경기와 접해 있으며, 아산만을 지나면 큰 소비시장인 서울이므로 상인의 왕래가 빈번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해로를 통하여 경기와 삼남의 인물과 문화가 끊임없이 이동하였음.
- 근래에는 한국전쟁 당시의 피난민을 포함하여 전라도의 어민, 제주도 해녀, 경상도의 간척지 이주민 등이 태안군으로 대거 이입하

였음. 그러나 집성촌이 크게 발달하지 못한 사실 등을 통해서 과거에도 인구이동이 활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 그것은 또한 어업과 상업 활동을 통하여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와 접촉하고 융합하였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음.

④ 갯벌의 간척

- 관이나 권세가에 의한 대규모 간척 외에도 주민들이 자기 농경지를 넓히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갯벌을 활용하였음.
- 농가들이 어울려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염생습지에 소규모의 방조제를 막아 200-300평 규모의 경작지를 만들었음.

⑤ 산지의 개간

- 태안반도에서는 구릉성 산지를 개간하면서 기존 취락이 확대되거나 또는 독립하여 새로운 촌락으로 발전하였음.
- 원래 ‘골’에 입지하였던 주민들은 자녀들을 분가시킬 때 산지를 상속함으로써 개간함으로써 부족한 경지를 보충하도록 하였음.
 - 그 결과 산자락의 소위 ‘골’에 위치한 집촌(集村) 외곽의 산등성이로 군데군데 집들이 흩어져 있는 산촌(散村)의 경관을 연출하게 되었음
- 이와 같이 태안군은 바다 간척과 더불어 산지를 개간하는 끈질긴 노력을 해온 지역임.

(2) 자립정신

① 호국의 의지

- 선진물물의 수입관문이자 교통의 요충지였다는 사실의 이면에는 언제나 외침의 위협이 있었음.
 - 고려말 이후에는 해적의 침입으로 인하여 태안군이 서산, 예산 등

- 지로 옮기는 비운을 맞이하기도 하였으며,
- 그 이전부터 있었던 백화산성을 비롯한 곳곳의 토성의 차취는 고대로부터 얼마나 외침에 대비했는가를 보여줌
- 소근진성과 안흥진은 16세기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었음.
- 외침에 대한 저항은 다시 동학혁명으로 꽃을 피웠음.
 - 동학은 이우너면 포지리와 원북면 방갈리를 중심으로 주변마을로 전파되다가 동학농민항쟁이 발발하자 ‘자주’를 기치로 내걸고 무능한 관아를 공격하여 주요 관아건물이 소실되고 안흥진성이 폐지되었음.
- 호국의 의지는 옥파 이종일(1858. 11. 6-1925) 선생의 활동으로 이어짐.
 - 옥파는 1858년 원북면 반계리에서 출생하여 1882년 박영효 선생과 함께 일본수신사로 가서 문물을 접하고 돌아와, 1908년 황성신문사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활동에 매진하다가, 1919년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으로 참여하여 옥고를 치르고 출감하여 1925년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기까지 독립운동에 매진하였음.
- 이 외에도 김동훈(소원면 신덕리), 가정로(태안읍 상옥리) 등의 의사, 그리고 조선독립단 서산군지부에서 활동하였던 이종현, 가재창, 오몽근, 염성한, 김전진 선생 등은 모두 독립운동에 깊이 참여하였던 인물들임.

② 어업과 자립정신

- 태안군은 대부분의 마을이 바다에 접해 있고, 그만큼 어업에 의존하는 정도가 클 수밖에 없음.
- 어업은 자연환경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농민에 비해 공간에 크게 구속받지 않으며, 따라서 어촌은 각성반이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업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은 태안군에는 집성촌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음.

- 어획량의 변동폭이 매우 클 수밖에 없는 항상 불안한 상황에서 어민들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기반을 마련하여 왔음.

③ 자립을 강조하는 분가방식

- 태안군은 갯벌을 간척하고 산지를 개간하는 한편, 어업활동에도 종사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농민들과는 달리 더 굳센 의지를 필요로 하였으며, 위계질서보다는 평등의식, 상호 의존보다는 독립심, 그리고 혈연보다는 지연에 기반한 결속력이 더 강조되었음.
- 이러한 태도는 태안 주민들의 상속관행에 그대로 반영되었음. 다시 말해서, 아들을 분가시킬 때 비교적 먼 거리에 자리 잡고 그 주변의 산지를 스스로 개간하도록 하였음. 더욱이 택지를 남에게 빌려주지 않는 관습 때문에 가옥은 더욱 멀리 떨어지게 되었음.
- 이와 같이 태안군민은 한편으로는 외침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 개인의 생활기반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왔음. 그 가운데 여타 농촌에 비하여 강인한 기질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임.
 - 호서읍지(湖西邑誌, 1871)의 태안군 풍속조에 태안의 풍속을 “생활이 검소하고 굳건하다”고 밝히고 있음.

(3) 화합정신

① 태안의 복군(復郡)

- 태안군은 마한시대의 신소도국(臣蘇塗國), 백제시대에는 성대혜현(省大兮縣), 통일신라시대에는 소태현(蘇泰縣), 고려 충렬왕 이후에는 태안군이라는 이름으로 존속되었음. 그러나 고려 말엽인 1373년 해적의 침입이 극심해지면서 대부분의 주민이 떠나고 초토화되면서 폐군되는 비운을 맞이하였음.
-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순성(蓴城)이라는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굳

건히 지킴으로써 태종 17년(1417) 복군되는 감격을 맛보았음.

- 이는 서산시 팔봉면 진장리에 위치한 순성진에서 26년 동안 외침을 막은 결과였음.

- 그러나 1914년 일제강점기 하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일환으로 폐군되었음.
- 해방을 맞이하면서 태안군민은 곧바로 태안군분군추진위원회(泰安郡分郡推進委員會)를 결성하여 군의 독립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나, 분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태안은 서산에 비해 더욱 낙후되었음.
 - 1961년 당시 태안면과 서산읍의 인구가 각각 22,000명 및 28,000명으로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나, 서산은 성장을 거듭하여 시로 승격된 반면에 태안은 정체를 면하지 못하고 었음.
 - 그러나 태안군민의 끈질긴 요구는 마침내 결실을 보아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공약으로 채택되었고, 마침내 1989년 복군이 이루어졌음.
- 이와 같이 두 차례에 걸친 복군의 조치는 태안군민의 끈끈한 단결력을 바탕으로 해서 비로소 가능했던 일이라 할 수 있음.

② 이주민과의 융화

- 태안군은 여말선초(麗末鮮初) 이후 해안방어가 안정되면서 새로운 이주민들이 본격적으로 개척하기 시작했으며, 세종 8년(1426) 다리곶(多利串) 목장이 폐지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음.
- 이후 조선 중·후기에 4개소의 국마장의 폐지와 조선 말엽의 안면도 금산(禁山)이 폐지가 있었고, 해방 이후까지도 간척과 산지 개간이 지속되었음.
- 20세기에 들어서 수산업이 활기를 띠면서 어민들도 태안군으로 몰려들었고, 그 이후 전라도 출신 어민, 경상도 출신의 정착촌, 제주도의 해녀, 한국전쟁 당시의 피난민 등이 대거 정착하였음.
- 이와 같이 태안군은 다양한 집단을 감싸 안게 되었고, 그 결과 다

른 지방에 비하여 동족마을은 많지 않으며, 반상의 차별과 같은 불평등이 심하지 않은 지방임. 다시 말해 농촌과 어촌, 토박이와 이주민 등 다양한 주민들이 어울려 사는 까닭에 사회관계가 비교적 평등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은 복군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연에 바탕을 둔 결속력은 어느 지방보다도 강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저력은 강력한 자연공동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음.

③ 공동체 신앙

- 태안 군민들은 소규모의 토지를 경작하는 한편, 바다를 공동으로 이용하여 생활을 영위하였으며, 당연히 두레는 물론이고 뱃길의 평안을 비는 풍어제가 활발하였음.
- 태안군은 최근까지도 해상교통의 요충지였던 탓에 공동의례의 규모가 매우 컸음.
 - 1977년 제18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황도붕기풍어제
 - 안흥진성이 있었던 정죽리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15일에 산제당 1곳과 성황당 2곳에서 풍어와 뱃길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렸음.
- 태안군은 다른 지방보다 강력한 군민연대를 이끌어내었던 사례가 많음
 - ‘태안군민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상인의 진출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다’는 말이 회자되었음.
 - 1990년 11월 안면도 핵폐기물처리장 시설설치를 전 군민이 하나가 되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투재하여 백지화하였고, 1993년에는 ‘백지화 자축 주민화합 큰 잔치’가 열렸음
 - 태안군 소원면에 ‘중부권 특정폐기물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던 계획도 태안군민을 결속시킨 좋은 사례임.
 - 특히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로 태안반도 전역이 황폐화되었을 때 모든 군민이 단합하여 결국 극복해내었음.

2) 옥파 이종일(沃坡 李鐘一) 선생의 새마을정신(新村精神)²⁾

(1) 새마을정신(新村精神) 제창

- 옥파 이종일(沃坡 李鐘一) 선생이 1988년에 신촌정신(新村精神)을 제창하여 사회개혁을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그것은 ‘보수적이고 의타적인 국민정신을 개혁하여 진취적이고 활성화된 국민의식의 재구조화’를 촉구한 것이었음.
 - 당시 우리나라는 외세의 마수는 점점 조여오고 있음에도 정부 당국자들이 의타적이고 보수적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국민의 나아갈 바를 명시한 것임.
 - 이 신촌정신은 오늘날의 새마을운동과 같은 것으로서 새마을운동보다 70여년 앞서서 제창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옥파 이종일 선생이 새마을운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각자이자 애국자였음.
- 옥파는 우리 국민이 하루속히 개화하려면, 첫째 봉건의식을 탈피해서 신촌정신으로 매진해야할 것을 강조하였음.
 - 이는 ‘먼저 정신을 개조한 후에 물질적인 풍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음.
 - 인습적인 정신을 개조하지 않고는 물질적인 풍요가 따를 수 없거니와, 설령 따른다고 해도 그것은 마치 속이 끓아터진 참외와 같은 것이라고 했음.
- 옥파는 정신개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견지해온 굳은 신념이며 이상’이라고 말했음. 이렇게 정신개조를 먼저 강조한 신촌정신에서는 비근한 일부부터 시작하여 사람이 사람다운 인격도야, 도의정신 진작, 명랑사회 조성, 질서있는 사회건설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 당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폐습인 곳, 푸닥거리, 풍수지리설 같은 미신을 타파하여 개화를 촉진시키고, 불합리한 혼인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창조정신으로 활기찬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

2) 이 절은 박춘석(2008, 「옥파 이종일」, 태안향토문화연구소, pp.388-400)의 내용을 전재(全載) 또는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

하였음.

- 이어 옥파는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면 ‘하늘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면서, 단결과 협동, 노력과 진취 정신은 우리나라의 빈곤, 질병, 재앙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곳에 들어있다고 말하였음.
- 그러므로 걸치레보다는 내실, 외국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일을 나의 일처럼 하자는 충애정신(忠愛精神)의 발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음. 분에 맞는 생활과 저축생활, 산림의 육성보호가 부강국(富強國)으로 가는 수단과 지름길임을 강조하였음.
- 옥파는 실학사상과 개화사상을 동일한 맥락으로 받아들여 신봉하면서, 정치문제에 치우친 개화사상보다는 일반적인 국민생활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여 정립시킨 사상으로서 신촌정신을 제창한 것임.
- 따라서 이 신촌정신은 실학사상과 개화사상을 종합하여 발전시킨 사상이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옥파는 이 신촌정신을 발전시켜 나가려면 국민들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 선개정신(先改精神)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음
- 국민의 의식개혁이 없이는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풍요로운 국민생활을 누리는 일이 어렵다고 하였음.
- 이는 전래의 고루한 국민정신의 풍토 속에서는 신촌정신 본연의 성취가 달성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음.

(2) 새마을정신(新村精神) 운동의 주요 내용

- 옥파가 주장하는 신촌정신을 크게 나누면 국권회복(國權回復), 의식개혁(意識改革), 국제사회교류(國際社會交流), 정치도의재건(政治道義再建), 이도쇄신(吏道刷新), 식산흥업(殖産興業), 신학문장려(新學問獎勵), 생활합리화(生活合理化) 등임.
- 이 항목들 중에서 3.1 운동을 전후한 정치상황에 국한된 국권회복을 제외하고 의식개혁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옥파 이종일 선생의 신촌정신운동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1. 의식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강(自強), 자립(自立), 자주(自主) 의식 함양 등 질서를 존중하는 국민으로 성장 • 애국애족, 인보간(隣保間)의 상부상조의 기풍조성, 호승지기(好勝之氣)의 함양 • 근검절약과 사치·낭비의 추방, 분의(分義)에 맞는 생활 태도 • 반상(班常)·관민(官民)의 차별의식 철폐, 국민 평등사상 • 개혁 의지 및 정신문화의 창달 	• 태안정신 및 새마을정신과 연계 됨
2. 국제사회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사회 문화교류의 능동적인 접근으로 국익을 도모 • 선진기술 도입 • 국제외교의 성숙 	• 글로벌시대의 질적 성장을 위해 필요
3. 정치도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파와 당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난 위민선정(爲民善政)으로 민족적 총화단결 • 법 운용의 공정 	• 태안정신의 하나인 “화합”과 연계
4. 이도쇄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부패의 관리 추방 • 위정자의 솔선수범 	
5. 식산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공업의 진흥과 수출 증대 • 상도의(商道義) 확립과 경제질서 회복, 민족자본 형성 추구 • 도로정비(治道)를 통한 지역 간 무역교류 활성화 • 지하자원과 수산업의 개척, 식목·육림으로 경제림 조성, 양잠의 장려 • 각종 기술도입 및 개발 촉진 • 관리들의 국가경비 절용의식(節用意識) 강화, 금융질서 및 행정기구 간소화로 국가의 예산낭비를 방지 • 국민보건 향상, 생활환경 미화, 미신타파, 퇴폐풍조 추방을 통한 합리적인 일상생활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잘 살아보지”는 새마을운동 목표와 연계됨 • 오늘날의 “경제민주화” 논의와 맥을 같이 함

(3) 시사점

- 태안군의 정신적 특성은 개척정신, 자립정신, 화합정신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과 일맥 상통함.
- 옥파의 새마을정신(新村精神)은 의식개혁에서부터 국제교류, 정치와 행정의 혁신, 경제발전 방안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은 개혁운동임.
 - 이는 옥파의 고향인 태안의 지역정신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며,
 - 1970년대에 제창된 새마을운동보다도 오히려 폭 넓은 국민개조운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21세기에도 여전히 적용 가능함.

3. 뉴새마을운동(2008~)

1) 뉴새마을 운동의 개념³⁾

- 뉴새마을운동은 영어 뉴(New)와 ‘새마을운동’의 합성어로서 새로운(新) 새마을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새마을운동은 ‘새로운 마을운동’에 국한된 좁은 의미가 아닌 ‘새마을’과 ‘운동’이 결합된 고유명사로서 마을 단위는 물론 지역사회와 국가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킨다는 넓은 의미를 포함함.
- 따라서 뉴새마을운동은 과거 물질적 잘 살기운동이라는 고정된 인식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 삶의 양과 질을 추구하는 21세기 선진국형 운동으로의 새로운 전환을 의미하는 운동임

2) 뉴새마을 운동의 정신⁴⁾

- 새마을운동의 본래 기본정신은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이었음.
 - 이 정신은 70년대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추동해온 실천원리임.
 - 이 정신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용적인 행동철학이 담겨있어 개발연대의 운동정신에 매우 적합했음.
- 뉴새마을운동은 이러한 기본정신 바탕 위에 시대에 맞는 변화(Change)·도전(Challenge)·창조(Create)의 3C 정신을 추가로 설정하였음.

(1) 변화(change)

- 변화(change)는 진보와 향상을 가져오는 유일한 원동력임. 특히 오늘날 속도경쟁의 시대에 있어서 변화는 기업이나 조직의 사활과 직결됨.

3) 새마을운동중앙회(2010), 「새마을운동 소개책자」, p.12.

4) 새마을운동중앙회(2010), 「새마을운동 소개책자」, pp.17-18.

- 특히 새마을운동은 생명체운동으로서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 변화하고 적응해야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음.
- 한걸음이라도 앞서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고정관념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함.
- 변화를 즐겨야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음.

(2) 도전(Challenge)

- 도전(Challenge)은 신념과 자신감에서 출발함.
 - 70년대 새마을운동의 성공은 ‘하면 된다’는 신념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했음.
 - 인류 번영의 역사는 도전의 산물임.
 - 시작은 고난이 따르지만 나중에 다가올 영광을 상상하면 도전은 가슴 뛰는 일이며 아름다운 것임.
 - 도전은 목표도달의 원리임.

(3) 창조(Create)

- 창조(Create)는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문제의식에서 나옴.
 - 문제의식이 있어야 그것을 해결할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저마다 갖고 있는 소질을 개발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그 창의력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함.
 - 아울러 자극, 격려, 권한 이양 등의 적절한 조화가 있을 때 창조의 능력은 극대화 됨.
 - 조직발전과 국가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창조는 가치창출의 원리임.

3) 뉴새마을 운동의 중점운동5)

(3) Green Korea 운동[녹색새마을운동]

□ 개 요

목 표	녹색생활화로 저탄소 녹색사회 만들기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새마을운동을 뉴새마을운동의 기초·선도운동으로 추진 ○ 가정과 직장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국민공감운동 전개 ○ 녹색운동을 통한 뉴새마을운동 후계세대의 청소년 육성 ○ 교육, 캠페인, 홍보사업 추진으로 국민적 실천분위기 확산 ○ Green마을 육성을 통한 뉴새마을운동의 새로운 역할 홍보 	
추진방침	교육, 캠페인, 홍보, 실천을 통한 공감대 형성 및 자율 참여 확대	
추진과제	녹색생활실천	에너지절약 캠페인, 자원 재활용, 자전거타기, 녹색실천 시범마을육성,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100만 그루 나무 심기
	4대강·하천 살리기	홍보 및 교육, 담당구역 지정 지킴이, 행락철 쓰레기 되가져오기, 환경감시 및 계도활동
	지구온난화 방지	실천가 및 핵심리더 양성, 주민현장교육, 녹색성장 정책홍보, 녹색생활 국민계도

□ 추진과제별 주요사업

① 녹색생활 실천

- 에너지절약 캠페인, 온맵시 및 쿨맵시
- 자전거타기 생활화, 대중교통 이용하기
- 3R자원재활용운동, 옥상녹화 및 상자텃밭 가꾸기, 나무심기
- 새마을 대청소 및 국토 대청결 운동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물 절약 캠페인
- Green마을 육성 및 탄소 포인트 가입 운동

② 4대강·하천 살리기

- 홍보 및 교육(중앙연수원, 각종 회의 및 간담회)
- 하천별 담당구역 지정 정화활동
- 행락철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 명예환경감시 활동

③ 지구 온난화 방지

- 실천가 및 녹색생활 핵심리더 양성

5) 새마을운동중앙회 홈페이지

(2) SMART Korea 운동[나라 품격 높이기 운동]

□ 개 요

목 표	격조 높은 시민·품위 있는 나라	
기본방향	○ 법과 원칙, 상식이 통하는 신뢰의 공정 사회 구현 ○ 일상과 개인이 중심이 되는 생활 속의 운동으로 전개 ○ 자율·책임·주민이 주도하는 품격 높은 공동체 운동으로 추진	
추진방침	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쉽고, 가까운 작은 것부터 추진	
추진과제	성숙한 시민의식함양	캠페인(운전, 거리, 전화, 식당, 여행문화), 새마을 포럼, 연수원 교육, 간담, 회의, 홍보, 퀴즈 이벤트, 나라사랑 청년걷기대회
	격조 높은 마을 만들기	격조 높은 마을 만들기-칭찬하는 마을, 배려하는 마을, 인사하는 마을, 음주운전 없는 마을, 법질서 지키는 마을, 청소년이 안전한 마을, 노인이 행복한 마을,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마을, 책 읽는 마을 등 실천덕목, 과제선정, 자율추진
	지역문화 가꾸기	유무형문화재 지키고 가꾸기, 대학생 문화, 청소년 내 고장 문화유적 배우기, 북 페스티벌, 독서 경진대회, 독서동아리 구성, 학생 방학교실, 알뜰도서관 교환

□ 과제별 세부 사업

①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

- 스마트 코리아운동 캠페인(미소, 예절, 칭찬, 법질서, 글로벌 품격높이기)
 - 노블리스 오블리주 및 운전, 거리, 전화, 식당, 여행문화 캠페인
- 스마트 코리아운동 교육, 간담회, 회의
- 스마트 코리아운동 홍보
- 청년학생, 주부, 시민 걷기 대회(올레길, 둘레길 걷기 행사)

② 격조 높은 마을 만들기

- 매력과 품격 높은 공동체 만들기(화합, 소통, 실천, 개선, 함께 만드는 마을)
- 주민이 주체가 되고 참여하여 마을공동체를 가꾸어가는 과정
- 마을의 자체 기획과 자기 책임 원리에 의해 주민이 주도한 법과 원칙, 신뢰가 바탕이 되는 품격 높은 커뮤니티 공동체 조성

③ 지역문화 가꾸기

- 우리 고장 문화유산 가꾸기 운동
- 청소년 내 고장 문화유적 배우고 가꾸기, 대학생 농촌 문화(文活)

(3) Happy Korea 운동[살맛나는 공동체 운동]

□ 개 요

목 표	살맛나는 행복 공동체	
기본방향	○ 나눔과 배려를 통한 사회통합과 공동체 정신 확산 ○ 구호성, 일회성 단순지원에서 결연 등 지속적인 추진 ○ 계절적 사업수요에 부응한 월별, 분기별, 기관별 으뜸사업, 중점사업 발굴 및 집중화	
추진방침	수혜자 중심의 밀착형 사업으로 추진 일감의 선점, 집중, 규모, 지속, 차별화	
추진과제	나눔문화 확산	나눔·돌봄·행복 기부센터 개설, 나눔 문화 한마당 큰잔치, 줄기·자 모금, 동생 행복 도우미, 새마을 후원회 확대
	희망의 사다리 놓기	홀몸 노인 결연 돌보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랑의 100만포기 김장나누기, 사회적기업 시범사업 및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희망 나눔 한마당, 1:1 멘토링, 디딤돌교실, 자녀 공부방, 친정부모 초청, 다문화지도자 교육, 효편지, 생활수기 공모
	도농교류 및 안전지킴이 활동	청소년 농촌 에코 체험, 직거래 장터, 실버봉사단 등학교 안전 지킴이, 스쿨존 지키기, 재난재해 방지 활동

□ 과제별 세부 사업

① 나눔 문화 확산

- 지회별 나눔, 돌봄, 행복기부센터 개설 및 나눔 문화 한마당
 - 재능기부 및 결연을 통한 풀뿌리 기부문화 운동 확산
- 이웃사랑 100만 후원회원 모집, 후원의 밤 개최
- 즐겁고 기쁜 자발적 모금, 동생 행복 도우미, 엄마 품 멘토링

② 희망의 사다리 놓기

- 홀몸 노인 사랑 잇기, 집 고쳐주기, 장애우, 소년소녀가장 등과 함께하기
- 사회적 기업 설립,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시범 추진

③ 다문화 가족 지원

- 희망 나눔 한마당, 결연, 멘토링, 디딤돌 교실, 한글 교실, 생활수기 공모
- 다문화 정착 지도자 교육, 친정부모 초청, 효 편지 쓰기

(4) Global Korea 운동[새마을운동 세계화]

□ 개 요

목 표	더불어 잘사는 지구촌 건설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운동 방식 모델, 개발 보급 ○ 새마을교육을 통한 대상국 빈곤퇴치 기반을 조성 ○ 국가별 시범마을 발굴·육성하고 모델화를 통한 확산보급 	
추진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일화·전사·공여성 배제 ○ 자립역량 제고를 위한 새마을조직 육성 등 새마을운동의 현지화 	
추진과제	외국인 새마을 교육	합숙교육, 1일 교육, 현지 방문 교육, 국내거주 외국인 유학생 교육
	새마을방식 시범마을 육성	새마을시범마을 육성, 환경개선, 소득증대사업 아시아 아프리카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컨설팅, 홍보
	현지 교육 확산 및 추진 체재 구축	현지 교육 강화, 자립기반 지원, 조직 구성 및 운영지도
	대학생해외봉사활동	중, 단기봉사단 (하계1, 동계1), 대학생 해외봉사단 국내 활동지원
	새마을운동 국제연맹 결성	재외 한인동포 중심 국제연맹 결성

□ 과제별 세부 사업

① 외국인지도자 새마을교육

- 합숙교육 및 1일 교육
- 국내거주 외국인유학생 교육
- 국제새마을 세미나, 사례연구

② 새마을운동 방식 시범 마을 육성

- 글로벌 새마을 펀드 조성 및 아시아, 아프리카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 시범마을 환경개선, 소득증대 사업
- 컨설팅, 홍보물 제작

③ 현지 교육 및 추진 체재 구축

- 현지 교육 확대
- 조직 구성 및 운영 지도, 자립기반 지원

④ 대학생 해외봉사활동

- 단기 및 중기봉사
- 대학생 해외봉사단 국내 활동지원

4. 태안군의 뉴새마을운동 추진과제

1) 뉴새마을 운동의 정신

- 태안정신, 옥파선생의 신촌정신, 새마을정신, 뉴새마을정신 중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하고, 태안군정 이념을 결합하여 선택

2) 뉴 새마을운동의 비전

(1) 비전 설정의 과제

- 인간으로서 품위 있는(decent)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수요(basic needs) 충족: 삶의 질 향상과 국민 미니멈(National Minimum) 충족
- 더 이상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여 농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다문화가정, 귀농·귀촌인들과 조화롭게 공생하는 지역공동체를 구현
- 지역주민의 역량과 지혜, 특성자원을 기반으로 협동과 연대의 공동체 경제 활성화(순환형경제)
- 지속가능한 지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인간과 자연의 공존 시스템 구축
- 함께하는 행복한 공동체(마을)자치를 통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2) 비전 설정(안)

☐ 대안

- (대안 1)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 공동체, 태안
- (대안 2) 함께 도전하여 더불어 번영하는 태안
- (대안 3) 더불어 잘 사는 태안
- (대안 4) 더불어 잘 사는 행복고을, 태안

- (대안 5)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구현
- (대안 6) 더불어 잘 사는 행복 공동체 구현

□ 캐치프레이즈

- (대안 1) 함께 도전하여 더불어 번영하자
- (대안 2) 다시 한번 뛰어보자

3) 뉴새마을운동의 실천과제

(1) 마을 만들기와 공동체 회복

-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 공동체의 회복과 융합

(2) 순환형(공동체) 경제 활성화

- 지역공동체가 함께하는 농촌경제 다각화
- 사회적 경제 확대 발전

(3) 사람과 자연의 공존시스템 구축

- 그린 코리아 운동과 연계
- 깨끗한 태안 만들기 운동

(4) 열린 지역사회

- 태안군내 마을간, 농촌중심지와 마을간 연계·협력 강화
- 도농교류, 관광자와의 교류, 국제적 교류의 증진

4) 태안군 뉴새마을운동의 전개 원칙과 체계

(1) 운영원리

- 지역주민의 공동의 관심사에 기반하여야 한다.
- 단기적·외형적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
-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도 상호 합의를 통한 결정을 중시해야 한다.
- 민-관 파트너십에 의한 협력에 의해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시도록 한다.

(2) 협력·지원체계

- 뉴새마을운동에 의한 지역만들기가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주민을 조직하고 주민역량을 개발·육성해야 한다.
- 전문가, 시민단체는 모범답안을 제시하기보다 주민역량 개발, 행정과 주민 간의 중재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행정은 지나친 개입을 지양하고 조례, 조직, 예산 등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뉴새마을운동에 의한 지역만들기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

5) 태안군 뉴새마을운동 과제별 추진방안

(1) 마을 만들기와 공동체 회복

(1-1)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 추진방향

-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더 이상의 마을공동체의 축소·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중심의 마을만들기를 추진
- 세부 추진사항
 - 공동체 역량과 경험에 맞추어 단계적인 마을만들기 추진
 - 지역 리더의 육성과 주민 역량의 강화
 - 공동체 문화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삶의 방식의 정착·확산
 - 주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민관협력체계의 구축, 현장 밀착형 중간 지원조직 구성·운영, 지역공동체 주민과 전문가 집단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전문성 제고와 공동체 특성에 맞는 발전방향의 모색

□ 기존 시책과의 연계

- 현장포럼 적극 활용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포괄보조금사업
- 희망마을 만들기
 - 충청남도 농촌개발과

(2-2) 공동체의 회복과 융합

□ 추진방향

- 기존의 지역사회 주민과 다문화가정 및 귀농·귀촌인구가 조화롭게 공생하는 지역공동체로의 전환을 도모
- “사람” 중심의 가치회복과 “신뢰의 관계망”의 재구축을 포함하는

지역공동체 복원을 통해 생산, 소비, 생활, 문화, 자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자립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존 시책과의 연계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추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연계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포괄보조금사업

(2) 순환형(공동체) 경제 활성화

(2-1) 지역공동체가 함께하는 농촌경제 다각화

□ 추진방향

- 기존의 농수산업을 바탕으로 하되 지역의 자원과 주민의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6차산업화를 도모
- 마을 단위, 법인 단위의 공동체 사업을 육성하되, 그 성과를 마을공동체에 환원

□ 기존 시책과의 연계

- 두레기업, 마을기업 등으로 공동체 단위 6차 산업화 추진
 -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및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
 - 농식품부 지역개발과

(2-2) 사회적 경제의 확대 발전

□ 추진방향

- 사회적 경제 또는 공동체 경제 육성 등을 통해 함께 나누고 함께 소비하는 협력적 모듬살이 실현
 - 사회적 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공동체 경제 활성화

□ 기존 시책과의 연계

- 예비사회적 기업(충청남도),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3) 사람과 자연의 공존시스템 구축

(3-1) 그린 코리아 운동과 연계

- 에너지절약 캠페인, 자원 재활용, 자전거타기, 녹색실천 시범마을육성,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100만 그루 나무심기
- 하천 살리기 홍보 및 교육, 담당구역 지정 지킴이, 행락철 쓰레기 되가져오기, 환경감시 및 계도활동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실천가 및 핵심리더 양성, 주민현장교육, 녹색성장 정책홍보, 녹색생활 주민 계도

(3-2) 깨끗한 태안 만들기 운동

□ 기본방향

- (주민 중심) 마을리더, 농민단체, 협동조합 중심으로 자율적인 깨끗한 농촌마을 만들기 농촌운동을 전개
 - 영농폐기물화 되는 농약, 비닐 등 생산하는 자재회사의 동참 유도
 - 필요시 농식품부, 환경부등의 후원, 지자체 참여
- (참여기반 확대) 농촌환경 개선활동으로 확대하여 필요시 도시민 자원봉사, 재능기부, 1사 1촌, 1교 1촌 등 민간 참여 확대
- (자율적 협약 등 시스템화) 마을가꾸기 주민협약, 깨끗한 마을 인증 등으로 주민주도 농촌 운동 정착
- (정책체계 개선) 영농폐기물 수거 등 폐기물 처리 시스템 강화

□ 추진방향

- 체험마을, 마을권역사업 등 농촌개발 추진마을부터 시작하여 확산
- 마을 주민들의 깨끗한 마을 만들기 필요성 인식 확산
 - 마을주민은 폐기물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다양한 교육 등을 통한 폐기물 문제 공감대 확대 필요
- 마을 리더, 농민단체가 깨끗한 마을 만들기 날을 정해 마을, 들판, 하천변 쓰레기를 마을내 지정장소에 모으는 활동 전개
 - 도로변 꽃심기, 분리수거 및 쓰레기봉투 사용 운동도 병행
- 농민단체협의회, 농협, 농촌공사 참여를 통해 네트워킹 추진
 - 농약, 비닐 등 자재 제조회사의 재능기부 등 참여
- 효율적 운동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기관 협조 체제 구축
 - 농식품부, 환경부, 안행부 및 지자체, 환경공단, 자원재생공사 참여
- 주민주도의 ‘깨끗한 마을 가꾸기 주민협약’, ‘깨끗한 마을 인증’을 통한 마을가꾸기 운동 정착
- 깨끗한 마을 가꾸기를 위한 마을별 실천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장기적인 마을발전 및 공동체 활성화 도모

참고문헌

-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2008), 「21세기 새마을운동 길라잡이」.
- 김현호·조기현(2013), 「국민통합과 주민 행복 시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전략」, KRILA Focus, 5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남원석·이성룡(2012), 「이슈&진단: 마을만들기, 성공의 조건」, 47, 경기개발연구원.
- 박춘석(2008), 「옥과 이종일」, 태안향토문화연구소.
- 새마을운동중앙회(2004), 「새마을운동 핸드북」.
- 새마을운동중앙회(2011), 「뉴새마을운동 소개책자」.
- 소진광(2007), “지역사회 거버넌스와 한국의 새마을운동”,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9(3), 한국지방자치학회.
- 임경수(2013), 「국가브랜드로서의 새마을운동 정책 방향」, KRILA Focus, 5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임선빈 외(1997), 「태안정신 정립에 관한 연구」, 태안군·충남발전연구원.
- 전대욱·박승규·최인수(2012),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록: 새마을운동의 전개과정과 최근 동향⁶⁾

1) 1970~1990년대의 새마을 운동

(1) 1970~1980년대 새마을운동

○ 새마을 운동의 시작:

- 일제 36년의 식민지 통치로 민족자본이 약탈당하고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국토에서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달성되면서 새로운 문제, 즉 도·농간, 계층간 격차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 1,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목표 대비 초과달성을 하였지만 1970년대 당시엔 농어촌엔 근대화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채 경제성장의 주변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음
- 하지만 공업화의 여파로 농어촌에도 도시적 문화가 서서히 유입되고 있었고,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영농여건 개선, 생활환경 개선에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음
- 1970년 4월 22일 한해대책을 숙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지방장관회의에서 대통령 박정희는 수재민 복구대책을 논의하는 도중 자조·자립정신을 바탕으로 한 마을가꾸기 사업을 제창하였고 이것을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 부르기 시작한 데서 새마을운동은 처음 시작되었음
- 이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정신적 기조로 근면·자조·협동을 설정하고 선 마을 자체적 노력, 후 정부 지원의 원칙을 견지하며 추진함

○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전개

- 1970년 가을, 마을마다 약 300포대의 시멘트를 지원하면서 주민들 스스로 힘을 모아 낡은 마을을 새마을로 바꾸는 자조사업을 전개함. 마을길을 넓히고 마을의 공동 시설물들을 건립하는 데 들어간 땅은 토지 소유주들이 마을을 위해 희사하였으며, 마을 주민들은 새마을

6) 임경수(2013, 「국가브랜드로서의 새마을운동 정책 방향」, KRILA Focus, 5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p.6~20)의 원고를 전문 발췌(全文拔萃)한 것이니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기 바람.

- 사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음. 또한 새마을 사업에는 마을의 부녀자들이 남자들에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 전국의 자연 부락수는 5만여 개나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새마을 사업을 잘하는 마을과 그렇지 못한 마을이 나타났음. 정부는 이에 따라 경쟁적, 선별적 방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새마을운동의 마을 유형을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로 구분하고, 다시 1980년대에는 자립마을, 자영마을, 복지마을로 구분, 해당마을에 따라 지원규모를 달리함

<표 1> 연도별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 변천과정

구분	전체마을수 (개소)	자립마을		자조마을		기초마을	
		마을수 (개소)	구성비(%)	마을수 (개소)	구성비(%)	마을수 (개소)	구성비(%)
1972	34,665	2,307	7	3,943	40	18,415	53
1973	34,665	4,246	12	19,763	57	10,656	31
1974	34,665	7,000	20	21,500	62	6,165	18
1975	35,031	10,049	29	20,936	60	4,046	11
1976	35,031	15,680	45	19,049	54	302	1
1977	35,031	23,322	67	11,709	33	-	-
1978	34,815	28,701	82	6,114	18	-	-
1979	34,871	33,893	97	976	3	-	-
		복지마을		자영마을		자립마을	
1980	35,530	25	0.1	583	1.6	34,922	98.3
1981	35,100	65	0.2	1,154	3.3	33,881	96.5
1982	35,327	256	0.7	4,342	12.3	30,729	87.0
1983	35,053	450	1.3	8,477	24.2	26,126	74.5
1984	35,100	717	2.1	12,230	34.8	22,153	63.1
1985	35,280	1,193	3.4	16,387	46.3	17,700	50.2
1986	35,217	1,540	4.4	19,132	54.3	14,545	41.3

출처: 송인성의 4인, 1987: 392.

- <표 1>에서 보듯이 1972년에 자립마을이 겨우 7%에 지나지 않았으나 1979년에는 97%에 이르게 되어 기초-자조-자립마을의 변별력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자 1980년부터는 마을유형을 “자

립-자영-복지마을”로 층위를 올려 구분, 각 마을마다 인센티브 규모를 달리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음

- 이처럼 경쟁적, 선별적 방식으로 점화된 새마을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공장새마을·도시새마을·직장새마을 등 한국사회 전체의 근대화운동으로 확대·발전하게 됨

○ 1980년대 새마을운동의 전개

- 198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정치·사회·경제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일시적인 정체가 있었으나 새마을운동을 국민운동으로 계속해서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1980년 12월 1일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사단법인으로 발족되었고⁷⁾ 이에 따라 정부 추진방식에서 민간조직(단체) 위주로 탈바꿈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됨
- 이 시기에 새마을운동조직으로 새마을운동중앙본부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공장새마을운동추진본부, 직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을 두었고 시·도에 지부(支部)를, 시·군·구에 지회(支會)를 두었으며 읍·면·동과 마을에는 남녀 새마을지도자를 두었음. 후에 이들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와 6개 회원단체로 변경, 확대되었으며 이후 새마을청소년회, 새마을체육회, 학교 새마을운동 등이 조직되어 새마을운동 민간조직을 전국적 체계로 구성하였음(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의 새마을운동』)
- 특히 1981년 이후부터 1989년까지는 농촌 새마을운동의 성과가 도시의 공장과 직장, 지역 새마을운동으로 확산되면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새마을 지도자 등 민간조직의 역할이 점차 커져 민과 관이 공조하는 운동으로 전환됨. 운동의 내용도 기존의 소득증대 운동에서 시민의식개혁운동의 성격을 띠게 됨(새마을운동 핸드북, 2004)
- 이에 따라 1980년대 새마을운동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의식개혁운동, 식생활 개선, 소비절약, 재활용품 모으기, 독서생활화, 근검절약, 저축, 새마을정신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음.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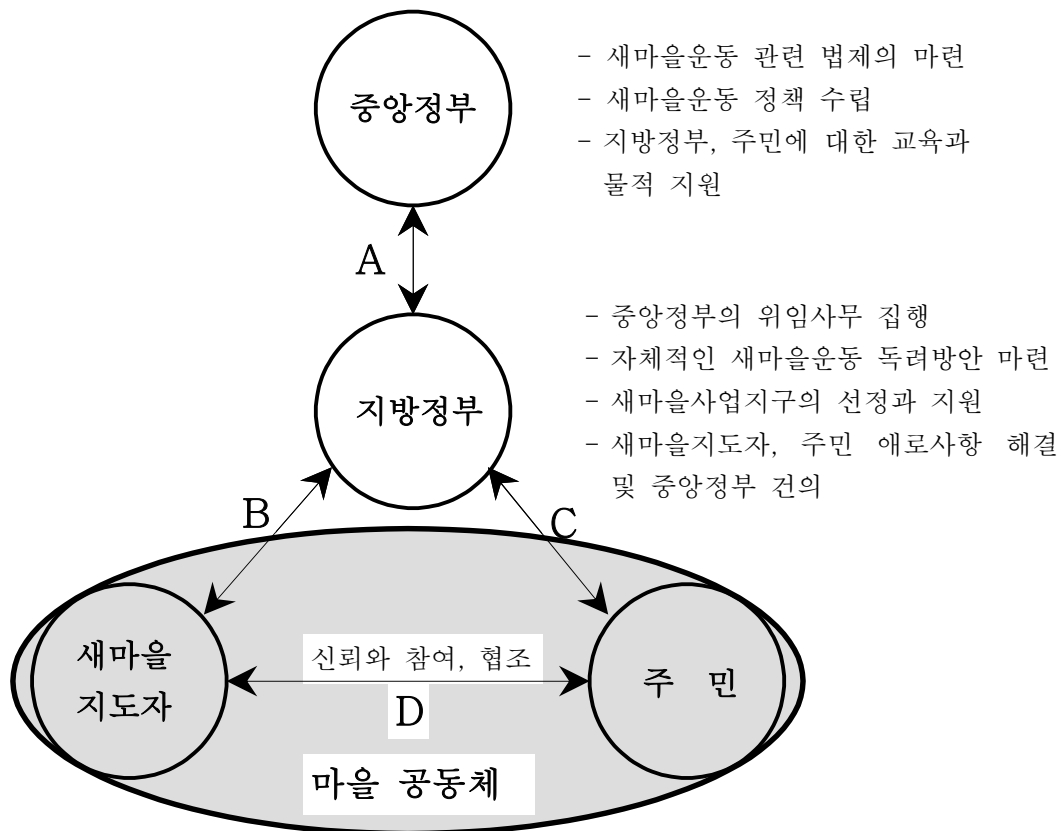
7) 1980년 12월01일 “(사)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창립되었고 이는 다시 1989년 03월21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개칭되었다가, 2000년 04월19일 “새마을운동중앙회”로 개칭되었음.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에 맞춰서 “질서, 친절, 청결”의 3대 과제를 새마을운동으로 전개하여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일조를 함

- 이 시기에 농촌과 관련한 새마을운동으로는 마을 진입로 포장, 복합영농, 작목개선, 농산물유통개선, 새마을금고 사업, 국토공원화 사업 등을 꾸준히 전개하였음

○ 새마을운동의 추진방법:

- 새마을운동의 추진방법은 상향식과 하향식 개발전략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여기에 선의의 경쟁과 지원 시스템이 가동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음. 이를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음



<그림 1> 새마을운동의 추진형태

자료: 임경수, 2012: 44-45.

- <그림 1>에서 보면 새마을운동의 운동주체는 지역사회의 지도자와 주민이지만 이를 지원하는 기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역할에 따라 새마을운동이 크게 4개의 연결망으로 구성되어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음

첫째, A 연결 :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둘째, B 연결 : 지방정부-새마을지도자 간 네트워크

셋째, C 연결 : 지방정부-주민 간 네트워크

넷째, D 연결 : 새마을지도자(주민)-주민 간 네트워크

- 새마을운동의 성공 이면에는 이러한 중앙정부-지방정부, 지방정부-새마을지도자, 지방정부-주민, 새마을지도자-주민간 상호 연결망이 적절히 운용되면서 마을 현장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추진형태를 띄고 있었음

○ 70-80년대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

- 첫째, 국민적 자각: 가난에 찌든 삶을 숙명으로만 여겨왔던 관습에서 탈피하여 「하면 된다」는 의지력과 근대화에 대한 국민적 자각과 열망이 있었기에 새마을운동은 성공할 수 있었음. 이는 율곡 선생의 有志者事意成(뜻이 있는 자에겐 이룰 수 있음), 다산 선생의 人定勝天觀(사람이 무엇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운명도 극복할 수 있음)과 같은 선조들의 교훈을 새마을운동을 통해 현대의 삶에 적용하고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됨(『새마을운동10년사』: 596)
- 둘째, 동기부여의 자극: 정부에서 마을마다 일정량의 시멘트를 공급하고 마을 스스로 결정하여 마을안길이나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한 것이 성공요인 중 하나임.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독려하면서 우리 마을, 각 농가의 환경개선 정도에 따라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자 새마을운동은 더욱 가속적으로 확대되었음(『새마을운동10년사』: 597)
- 셋째, 새마을교육을 통한 주민교육: 새마을교육을 통해 타성에 젖어 있던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했고 이를 통해 새마을지도자뿐만 아니라 주민의 새마을운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었음(『새마을운동10년사』: 598)
- 넷째, 상황적합적인 지원제도의 운용: 마을의 유형을 기초마을, 자조마을, 자립마을의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마을에 적합한 지원을 하게 되자 경쟁적으로 자립마을을 향해 주민들이 노력하게 된 점

(『새마을운동10년사』: 599)

- 다섯째, 집념에 찬 지도력: 새마을운동의 성공에는 당시의 대통령으로부터 마을단위의 새마을지도자까지 각 단계마다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집념과 헌신이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임.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을 통해 대대로 이어온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과 집념, 여기에 감동된 새마을지도자들의 헌신과 봉사가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음(『새마을운동10년사』: 600)
- 여섯째, 소진광(2007)은 새마을운동을 새마을운동의 추진조직(조직형태, 지도층, 조직가치 및 조직의 공동목표)과 새마을운동의 추진방식(권한행사방식, 의사결정, 정보생산, 공공재 생산과 관련한 주민의 역할 및 자원조달체계)의 9가지 변수를 분석한 후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을 주민참여와 이를 지속적으로 촉발할 수 있었던 추진방식과 추진조직 때문이라고 결론. 결국 새마을운동은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기보다 주민조직과 정부가 협조하여 제3의 공공영역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므로 거버넌스 체제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이것이 새마을운동의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봄
- 일곱째, 새마을 운동에서 강조되었던 근면, 자조, 협동의 덕목들이 실천과정에서 마을단위(사업지구)의 공통된 문화, 공통욕구(숙원), 공통적 전통과 역사와 접목되면서 마을단위 간에는 경쟁을 하지만 그 안에서는 상호 협동과 참여가 가능했음. 바로 이것이 마을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시장원리를 도입하면서도 마을 단위의 협동을 강조하여 경쟁과 협동을 통한 자본주의 경제원리를 농민들이 터득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당시에 농민들 스스로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의지가 강했고 이러한 의지에 정부의 지원이 적절히 작용한 것이 새마을 운동의 성공요인이라고 봄(임경수, 2011)
- 여덟째, 새마을운동을 통해 무엇보다도 경제적 소득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는 점이고 나아가 주민의 자치능력을 신장시키고 마을의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의 발아를 가져왔음(송현주·박종주, 1987).

(2) 1990년대 새마을운동

○ 여건 변화:

- 세계적으로 개방화,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세계교역체제가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변경되었으며, 선진국의 견제와 후발 개도국의 추격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샌드위치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음. 여기에 1997년의 외환위기로 인해 국가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반면에 사회적으로는 고도성장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기강의 해이 등의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었음
- 또한 1996년 12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국제교역량이 증가하면서 UN과 국제기구로부터 경제성장에 합당한 국제적 책무를 부담하라는 압박과 우리나라 자신이 그동안 경제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경제원조를 하는 공여국으로 전환하므로 국제적 권리도 그만큼 향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1990년대는 전환기적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 이러한 선진국의 견제와 개도국의 추격, 국제사회에서의 책무부담 압박과 우리 스스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갈등적 상황에서 정부는 개도국에 대한 공여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갔음. 국제원조를 받았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사례임.
- 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의 새마을운동은 국내적 상황에 적합한 새마을운동과 해외 개발도상국에서 요구하는 새마을운동의 두 가지 갈래로 구분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음

○ 1990년대 국내 새마을운동

- 80년대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당시에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던 집단이기주의, 과소비, 지나친 교육열로 인한 부작용 등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의식 개혁운동, 환경보전운동, 농어촌가꾸기운동, 이웃사랑운동 등의 사업을 전개했고 IMF 위기 때에는 경제살리기 국민저축운동, 나라사랑 금모으기운동을 주도하였음
- 이 기간에 역점을 둔 사업은 내고장 환경가꾸기,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경제살리기, 도·농간 직거래 촉진, 일하는 기풍진작,

건전생활운동, 도덕성 회복운동, 자원봉사활동 확대 등이었음

- 90년대에 전개된 새마을운동의 특색

- 첫째, 자율과 자립의 기반을 강화하여 독자적인 활동능력 구비
- 둘째, 개방화·지방화라는 내외적 변화에 부응하여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함양하는데 기여,
- 셋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식 개혁과 사회풍토 건전화에 노력

○ 1990년대 해외 수요에 대응한 새마을운동

- 1980년대 말부터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한국의 발전상을 연구하기 위한 왕래가 자주 있었고 역사상 전례가 없는 급속한 경제성장의 발전 동인(動因)으로 새마을운동을 높이 평가하시 시작함
- 이에 따라 90년대엔 해외 개발도상국에서의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수요가 점증한 시기이기도 함.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자국의 지역개발에 벤치마킹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70-80년대의 발전상과 그 원인, 조직과 개발 원리를 배워가기 시작하였음
- 특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후발개발도상국들의 정부 관료나 학자들이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기도 하고 새마을연수원에서 합숙교육을 받기도 하여 이 시기에 새마을운동의 국제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음

2) 2000년대의 새마을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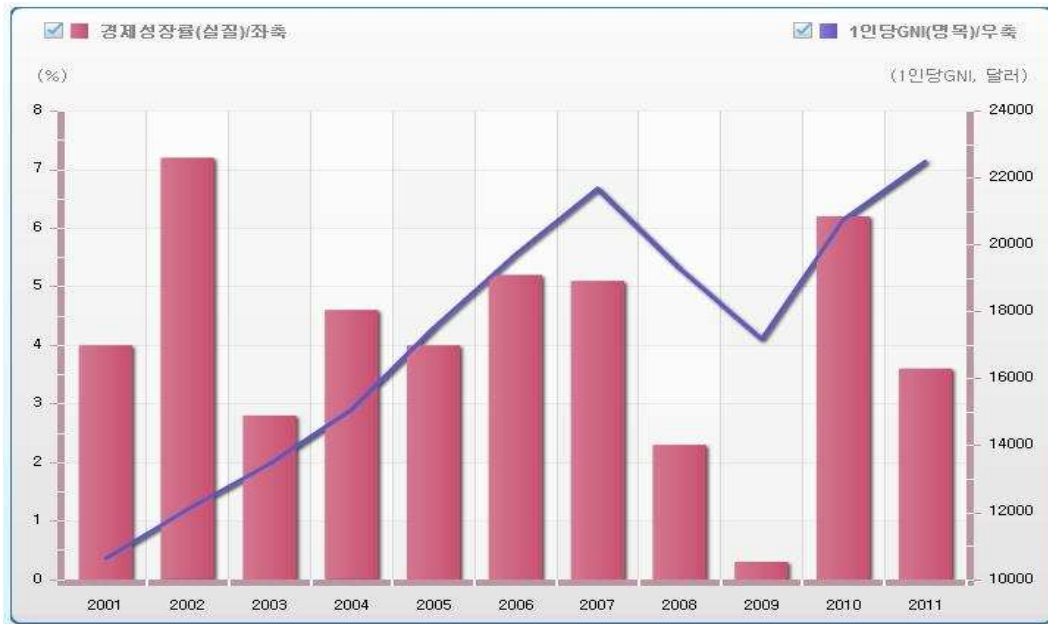
(1) 여건변화

- 2000년대는 1997년 IMF의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새로운 국운팽창의 기운이 경제계에 불고 있었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정착에 대한 확신이 국제적으로 신망을 얻고 있었음. 여기에 “2002년 월드컵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영화와 K-pop 등 문화계 한류의 확산으로 국가경쟁력이 60-7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해 있었음

<표 2> 한국의 경제성장률 및 1인당 GNI (2001~2011년)

연도	국내총생산 (명목 GDP) (억달러)	국민총소득 (명목 GNI) (억달러)	1인당 GNI(명목) (달러)	경제성장률(실질) (%)
2001	5,046	5,035	10,631	4.00
2002	5,759	5,762	12,100	7.20
2003	6,436	6,442	13,460	2.80
2004	7,224	7,245	15,082	4.60
2005	8,447	8,439	17,531	4.00
2006	9,511	9,525	19,722	5.20
2007	10,493	10,512	21,695	5.10
2008	9,309	9,379	19,296	2.30
2009	8,344	8,381	17,193	0.30
2010	10,147	10,146	20,759	6.20
2011	11,164	11,195	22,489	3.60

출처: 한국은행 (2005년 기준), (<http://ecos.bok.or.kr/> 2013. 2. 10일 검색)



<그림 2> 한국의 경제성장률 및 1인당 GNI (2001~2011년)

출처: 한국은행 (2005년 기준), (<http://ecos.bok.or.kr/> 2013. 2. 10일 검색)

- <표 2>와 <그림 2>는 2000년대의 우리나라 거시경제지표를 보여주고 있음. 2001년 1인당 GNI는 10,631불인데 비해 10년 후인 2011년은 두 배로 증가하여 22,489불을 시현하고 있음. 경제성장률은 2006, 2007년을 정점으로 2008년의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2009년에 급격히 낮아지고 있으나 2010년에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WEF)은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GCR)'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최근 수년간 하락세에서 벗어나 2010년 24위에서 2011년 19위로 5계단 상승했다고 발표. 보고서는 12개 항목 가운데 한국의 '사회기반시설'(9위), '거시 경제 환경'(10위), '초등교육'(11위), '고등교육'(17위), '기술 적용 준비도'(18위), '혁신능력'(18위) 등이 경쟁력의 발판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법적 제도적 구조'(62위), '노동시장 효율성'(73위), '금융시장 발전 정도'(71위) 등 3개 부문은 여전히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함(파이낸셜뉴스, 2012.9.6.일자). 이외에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세계 7위의 수출 강국, 무역규모 1조 달러 교역국 등 경제면에서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나 정치, 사회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개선 여지가 많은 국가로 평가됨

- UN은 2000년 9월 밀레니엄정상회에서 세계의 빈곤퇴지를 위해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설정, 18개의 세부목표(targets)와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48개의 지표(indicators)를 제시 (http://www.unicef.org/statistics/index_24304.html (2011. 9. 28 검색). 우리나라도 ODA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
- 또한 우리나라는 2010년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되면서 명실공히 ‘더불어 잘 사는 지구’ 건설에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고 G20 회원국으로서 ODA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할 예정임
- <표 3>에서 2001년의 우리나라 ODA 실적은 약 2억 6,500만달러 규모였던 것이 2010년에는 약 8억 1,600만달러 규모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하였음.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책무에 대한 국제적 압박 강도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제무대에서의 위상과 권한이 그만큼 커져 간다는 의미도 있음

<표 3> 연도별 ODA 지원실적(2001-2010)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ODA 총계	264.65	278.78	365.91	423.32	752.32	455.25	699.06	803	815.54	1,162.74
- KOICA지원분(A+B)	52.31	59.1	122.78	175.34	208.73	193.11	270.09	274.95	275.9	454.14
- KOICA지원율(%)	19.77	21.2	33.55	41.42	27.74	42.42	38.64	34.24	33.83	39.06
양자간원조	171.54	206.76	245.17	330.76	463.3	376.06	528.43	539.88	580.6	890.57
- 무상원조	52.97	66.7	145.46	212.09	318	258.95	361.28	369.33	366.47	566.83
- KOICA지원분(A)	47.04	58.59	121.77	174.58	201.86	193.11	270.09	273.06	272.9	448.93
- 유상원조(EDCF)	118.57	140.06	99.71	118.68	145.3	117.11	167.15	170.55	214.13	323.74
다자간원조	93.11	72.02	120.74	92.56	289.01	79.19	205.59	263.12	234.94	272.17
- KOICA지원분(B)	5.27	0.51	1.01	0.75	6.87	-	-	1.89	3	5.21
ODA/GNI비율(%)	0.06	0.06	0.06	0.06	0.1	0.05	0.07	0.09	0.1	0.12

※OECD/DAC통계보고 기준, 2010년은 잠정통계임.

자료: KOICA, 「2010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통계」, 122.

(임경수, 2011, “How to cultivate and Develop Global Saemaul Undong Model Village” 재인용)

-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을 대상으로 ‘경제발전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실시하고 있음. KSP 사업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일종의 컨설팅 사업으로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의 대표 모델로 꼽히며, 200여개에 이름. KSP 프로그램은 초청연수 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및 교육제도 혁신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가 포함되어 있음(행정안전부, 2013)
- 2000년대 새마을운동은 위와 같은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90년 대처럼 두 갈래로 진행되었음. 하나는 국내의 새마을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의 새마을운동 사업임

(2) 2000년대 국내의 새마을운동

- 특히 2000년대 후반기에 새마을운동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그변화의 중심은 70년대의 새마을정신을 이어가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면서 국민정신운동으로의 삶의 질과 양을 제고하는 21세기 선진국형 운동으로 전환하자는 것임. 이를 위해 2009년 후반기에 기존의 “새마을운동”이란 이름에 새롭다는 뜻의 영어 New를 우리말로 발음하여 “뉴새마을운동”이란 이름으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 있음
- 뉴새마을운동 정신은 과거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기본 바탕 위에 시대에 맞도록 “변화(Change)· 도전(Challenge)· 창조(Create)”의 3 C 정신을 추가로 설정함(『뉴새마을운동』 소개책자)
- 뉴새마을운동의 4대 중점운동:
 - **녹색새마을 운동(Green Korea):**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범국민 녹색 생활화 실천: 녹색생활 실천, 4대강 하천 살리기, 지구온난화 방지, 그린마을 육성, 에너지 자원재활용품 수집 등
 - **나라품격 높이기 운동(Smart Korea):** 나라와 국민의 품격을 높여 당당한 선진 국민되기: 법·기초질서 지키기, 글로벌 에티켓 지키기, 상대방에 대한 배려·칭찬·친절운동, 책읽기운동 등

- **살맛나는 공동체 운동(Happy Korea):**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살맛나는 공동체 만들기: 어려운 가정 한가족 손잡기,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기부문화 정착, 재난안전지킴이 활동 등
- **세계로 나가는 새마을운동(Global Korea):** 새마을운동으로 더불어 사는 희망 지구촌 만들기: 외국인 새마을교육, 새마을협력사업, 해외 새마을조직 지원 육성, 해외청년봉사단 활동 등
- Y-SMU 포럼 창립: 청년들의 새마을운동 참여를 위해 2011. 4. 21 일 Y-SMU 포럼을 창립
- “새마을의 날” 제정: 2011. 3. 8일,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법률로 제정하였음
- 뉴새마을운동의 실천은 위의 4개 중점 운동분야별로 지역현장 중심의 봉사기능 강화, 사회 각급 조직과의 연대협력, 행정과의 건전한 파트너십 구축, 조직 자율역량 제고 등 민간자율운동으로서의 지속성을 견지하고 있음
- 또한 기존에 해 왔던 생활의식개혁운동, 민간사회안전망운동, 환경보전운동, 지역활력화운동 등을 추구하면서 통일 및 국제화운동에 역점을 두어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에 주력하고 있음

(3) 2000년대 해외 새마을운동 사업

- 엄격히 말해 새마을운동에 대한 해외에서의 수요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을 시작했던 70년대부터 조금씩 있어왔음. 이러한 수요가 점증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민주주의가 안착되어가던 1990년대 후반부터였고 2000년대에 들어 와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사실상 2000년대부터 본격적인 해외새마을운동 전파를 시작하였음

<표 4> 외국인 새마을교육 실적 총계 (1973~2011)

	계	학습교육		1일교육		계	학습교육		1일교육
		인원	국가				인원	국가	
계	24,119	4,171	107	19,948	계	24,119	4,171	107	19,948
소계	6,585	1,144	49	5,441	소계	4,849	647		4,202
1973년	6	0	49	6	1990년	481	43		438
1974년	5	0		5	1991년	687	37	3	650
1975년	59	0		59	1992년	413	50	10	363
1976년	349	87		262	1993년	485	26	2	459
1977년	442	1		441	1994년	591	85	14	506
1978년	414	66		348	1995년	843	46	1	797
1979년	329	1		328	1996년	576	102	12	474
1980년	275	4		271	1997년	325	62	19	263
1981년	825	134		691	1998년	208	95	16	113
1982년	853	135		718	1999년	240	101	24	139
1983년	523	92		431	소계	12,685	2,380		10,305
1984년	725	191		534	2000년	450	109	20	341
1985년	518	138		380	2001년	212	41	6	171
1986년	380	131		249	2002년	366	39	15	327
1987년	289	41		248	2003년	542	0	0	542
1988년	256	73		183	2004년	1,005	20	1	985
1989년	337	50		287	2005년	911	90	3	821
-	-	-	-	-	2006년	1,836	310	2	1,526
-	-	-	-	-	2007년	879	128	15	751
-	-	-	-	-	2008년	1,617	89	3	1,528
-	-	-	-	-	2009년	1,044	317	44	727
-	-	-	-	-	2010년	1,731	395	54	1,336
-	-	-	-	-	2010년	1,731	395	54	1,336
-	-	-	-	-	2011년	2,092	842	68	1,250

출처: SMU (새마을운동중앙회) 중앙연수원, 2012, 『새마을교육40년사』 416-419.

주: * 『새마을교육 20년사』, 매년 『새마을교육결과보고서』, 매년 『국제협력사업 결과보고서』

등을 근거로 작성됨. 지방방문은 일부년도 집계 없음 공식 숫자에는 미포함.

* 기존의 1일 교육 인원 중 지방에 방문했던 29,008명은 미포함

지방방문 인원 포함 시 : 53,127명임

* 2000년 이후 1일 교육 숫자에는 중앙회 숫자가 포함됨

- <표 4>에서 보면 1973~2011년까지 외국인 새마을교육 실적을 보면 총 129개국 24,119명이 새마을교육을 받았고 이중 학습교육은 107개국 4,171명, 1일 교육은 129개국 19,948명으로 나타났음. 특히 1973-1989년까지 17년간 새마을교육을 받은 이수자수가 6,585명(연평균 387명)인데 비해 1990년대 10년동안 이수자수는 4,849명(연평균 485명), 2000년대 11년동안 이수자수는 12,685명(연평균 1,153명)으로 2000년대에 외국인의 새마을연수 수요가 90년대보다도 두 배 이상 급증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전술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짐과 동시에 개발도상국에서 새마을운동을 자국의 발전모델로 적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임
- 2007.1.31.일 아프리카 순방을 마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케냐 주재 유엔 기관 대표들과 조찬회의를 했는데 한국의 새마을운동 같은 것을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밝히면서 “몇 년간 아프리카를 지켜본 결과, 외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는 것이 자조, 협동의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며 “과거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스스로 협동하고 자신을 돕는 노력을 한 것이 생각나서 오늘 이를 설명했더니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다”고 동행한 기자들에게 설명
- 해외 새마을운동 현지화 사업은 2003년 우리나라와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가 아시아 지역 저개발국인 네팔, 캄보디아, 라오스 3개국에 새마을운동을 시범실시하기로 결정한데서부터 출발. 이후 해외 새마을운동 현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2009-2011년까지 진행한 것이 <표 5>와 같음

<표 5> 2009~2011년도 새마을시범마을 추진현황

구 분	제1차년도 (2009)	제2차년도 (2010)	제3차년도 (2011)
계	9개국 18개 마을	10개국 17개 마을	8개국 15개 마을
국 가	몽골, 네팔,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우간다, 탄자니아, 콩고, 코디트부아르	몽골, 네팔,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우간다,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콩고, 세네갈	몽골, 네팔, 캄보디아, 라오스,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우간다, 마다가스카르

자료: 새마을운동중앙회, 2011, 「새마을운동 세계화 추진계획」, 8.

- 해외새마을운동 현지화사업을 위한 초청연수의 교육방향, 교육내용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음
 - 교육방향: 초청 새마을교육은 현지인에 의한 새마을운동의 현지화를 목표로 교육했는데 물질적 지원보다는 새마을 정신과 새마을 방식 전수, 단계별 추진으로 현지인에 의한 추진체제 구축, 국가별 특성을 살린 모델 개발 등을 주요한 목표로 추진
 - 초청 새마을교육은 새마을운동의 현지 추진을 위해 “헌신적인 마을지도자 육성 ⇒ 교육 이수 지도자를 통한 현지 주민 전달교육 ⇒ 지속 추진을 위한 새마을교육 전문 강사 양성 ⇒ 주민 자율추진 체계를 위한 새마을회를 조직 ⇒ 새마을연수원 건립을 통한 현지화 새마을운동 추진”의 과정이 단계별로 실천될 수 있도록 교육
 - 초청 새마을교육의 특징은 팀제 새마을교육, 현지 새마을시범사업과 연계된 교육, 현지어 새마을교육, 국가별 맞춤교육, 3단계별 교육을 하되 기초단계-심화단계-정착 및 확산 단계별 교육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음
- 한편 2009년부터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새마을운동을 교육시키고 있음. 이는 최빈국 및 개도국의 새마을운동 전수 요청에 부응하고, 빈곤탈출의 사명감을 가진 저개발국가 새마을 국제 청년리더를 양성하여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의 조기 확산 및 코리아 브랜드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의도에서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음
- 외국인 유학생 새마을교육 대상자 선발과정과 추진방침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외국인 새마을교육 대상국가, 저개발국가 희망 유학생 위주로 선발
 - UN과 World bank가 정한 최빈국을 우선 선발하고 부족 시 타 국가 선발
 - 우선 신청학생 위주로 선발하되 인원 초과시 교육인원 일부조정
 - 대학전문 기관 및 각 대학에 협조 요청하여 홍보 효과 증대

- 프로그램은 새마을운동 기본이해와 해외사례 발표 중심 편성
- 외국 유학생 교육비 무료 및 참가 여비는 실비 제공
- 새마을운동에 관심있는 유학생은 별도 관리 및 지원책 강구
- 한국어 강의, 영어 통역으로 이해도 증진

<표 6> 해외 유학생 새마을교육 이수 실적

	남녀별	계	지역별				문화행사
			아시아	아프리카	CIS	기타	참가국
계	남283 여244	69개국 762명					
2009	남 65 여 37	31개국 102명	12국 66명	13국 30명	3국 3명	3국 3명	10개국
2010	남 87 여 73	43개국 160명	19국 88명	15국 61명	4국 5명	5국 6명	16개국
2011	남 263 여 237	61개국 500명	23국 288명	20국 132명	6국 50명	13국 30명	23개국

출처: 새마을운동중앙회, 2012, 내부자료.

(4) 새마을사업과 ODA 사업

- 우리나라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해외 새마을운동은 이제 UN의 MDGs에 부응하는 ODA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촌개발과 더불어 여성, 교육, 어린이, 환경 문제 등과 연계된 주민자치에 의한 자생적 운동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부에서는 「ODA 선진화 방안」(2010.10)을 마련, 우리나라의 특성과 수원국의 개발수요를 결합할 수 있는 새마을운동 개발협력 모델을 개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새마을운동 ODA TF」를 출범시켜 새마을운동 개발협력모델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 TF 팀에는 국무총리실(주관), 외교통상부(KOICA), 기획재정부(EDCF),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경상북도,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참여하여 기관 및 사업간 연계를 입체적으로 추진하여 통합형 개발협력모델 구축하기로 함
- 앞으로 해외 새마을운동 ODA 사업은 크게 네 가지 기본방향을 갖

고 추진

- 첫째, 수원국의 자립의지를 갖게 하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통해 사업대상 마을의 주요 현안을 스스로 결정·집행하는 역량을 배양
 - 둘째, 새마을 운동의 개발경험을 토대로 관계기관 및 사업들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ODA 기본모델을 설계. 여기에는 정부 유관기관이 같이 참여하고 나아가 초청연수, 정책컨설팅, 전문가 파견, 자원봉사단(WFK), 기술협력, 프로젝트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
 - 셋째, 시범마을을 선정, 성공사례를 구축한 후 모델을 다른 지역에 확대 적용토록 함
 - 넷째, 해외 새마을운동은 단지 새마을운동의 전파라는 차원을 넘어 G20 개발의제, UN MDGs의 빈곤퇴치, 파리선언의 원조 효과성 제고, 성평등, 환경 등 범 분야(Cross Cutting)를 망라하는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함
- 그동안 새마을운동의 주요 국제협력사업 중 역량강화를 통한 인적 자원개발은 연수와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주무기관은 KOICA에서 담당했으며 1991년부터 2008년까지 131개국 4,171명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및 농촌개발과정을 실시하였음. 또한 동 기간 동안에 54개국에 242명의 전문가를 파견했으며, 34개국에는 961명의 봉사단을 파견하였음(소진광 외 3인, 2012)

3) 새마을운동의 성과와 과제

- 1970-8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농촌주민이 스스로 하기 힘든 영역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여 수행된 국민운동이라고 본다면 1990와 200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정부가 하기 힘든 영역을 민간부문의 새마을운동이 수행한 국민운동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시 말해 70-80년대의 새마을운동이 농촌개발과 관련한 가시적 공간개발이라면 90년대 이후의 새마을운동은 경제성장에 걸맞는 시민의식이나

국민의식 개혁과 같은 비가시적이고 사회적인 운동이었음. 이런 점에서 1990년대 이후의 새마을운동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과거와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내용이나 사업추진방법은 현저히 다른 양상을 띄게 되었음

<표 7> 새마을운동의 시대별 변천과 특성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명칭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	뉴새마을운동
기본정신	근면, 자조, 협동	근면, 자조, 협동	근면, 자조, 협동	변화, 도전, 창조
사업추진주체	정부>민간	정부>민간	정부<민간	정부<민간
사업목표	근대화, 소득증대	근대화, 소득증대	삶의 질 제고, 건전 사회풍토 형성	삶의 질 제고, 선진 일등국가
사업추진방식	가시적 성과에 의한 지역사회 중심의 경쟁과 협동	정치적 의사결정과 중앙중심의 사업추진	민간기구로서의 자율적 추진과 지역사회 중심	국제기구로서의 도약과 민간기구로서의 자율적 추진과 지역사회 중심
사업내용	농어촌 개발, 직장생산성 제고, 지역사회숙원사업 해결 등	70년대 사업의 연장, 국민의식개혁운동	국내: 국민의식개혁 해외: 70-80년대 새마을운동 해외 확산	국내: 4대 중점사업 해외: 70-80년대 새마을운동 해외 확산
주민참여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의 획일적, 자발적 참여	정치적으로 선택적, 동원적 참여	순수국민운동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회원제 자발적 참여	순수국민운동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회원제 자발적 참여
사업활동의 강도와 양태	-관·민 모두 공동목표에 대한 강력한 일체감 형성 -참여열기·사명의식 고조 -가시적 성과 중시	전체적으로는 침체기였으나 일부 새마을정신의 기본가치에 대한 확신자들 중심으로 소극적으로 활동	-88올림픽 이후 국민운동으로 재점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민의식개혁운동에 역점을 둠 -해외 새마을운동 시동	-국가경쟁력을 위한 적극적 국민운동 -선진일류국가 건설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제2의 새마을운동 -해외 새마을운동 본격 착수
지도자 및 회원 양성	자발적, 선택적	자발적, 선택적	자발적 지원에 의한 교육이수	-자발적 지원에 의한 교육이수 -젊은이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조직 및 교육